

강진, 아이와 군민이 행복한 지역 건설 '성큼'

어울림센터·맘편한센터, 건축물 조성 본격 이용자 중심 복합문화 공간 조성 사업 '착착'

강진군은 강진읍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하는 어울림센터와 맘편한센터가 지난해 말에 연달아 착공하며 본격 건축물을 조성 중이라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어울림센터는 지역주민 연령 강화, 주민 간 공동체 형성, 영화관과 청년 창업지원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맘편한센터는 아이와 부모의 보육 시설, 청소년의 쉼터로 기능해, 강진군민의 복지 생활에 한 흐름을 그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어울림센터는 강진읍 동성리 192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 전체면적 3728.30m² 규모로 2023년에 준공 예정이다.

지상 1층에는 건강증진실, 헬스케어실, 공유사무실 및 회의실 등을 조성하고, 2층에는 분임토의실, 창업준비실, 상담실 등이 들어서 청년 계층과 평생 학습을 지원한다. 3층은 강진군민의 오랜 소망이던 영화관이 들어서고, 4층은 요리 교실로 활용된다.

영암, 이주민·선주민 어울리는 '삼호주말장터' 오는 3일 운영

영암군이 오는 3일부터 7월 29일 까지 기간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삼호읍 대불종합체육공원에서 이주민과 선주민이 어울리는 '삼호주말장터'를 연다.

오는 3일 오후 2시 개장식으로 문을 여는 삼호주말장터는, 이주노동자·결혼이주여성 등 아시아 외국인 주민이 많은 삼호읍의 지역 특성을 살린 행사.

장터는 판매부스, 체험행사, 문화예술공연 등으로 꾸며진다.

특히, 여러 나라 출신인 외국인주민들은 출신국과 민족의 다양한 음식과 상품을 판매부스에 차려놓을 예정이다.

선주민들은 영암 농특산물 판매장과 플리마켓을 열어 주말장터를 풍성하게 채울 전망이다.

체험행사장에는 가족 단위로 장터를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에어바운스가 설치되고, 비눗방울과 물총놀이 코너 등이 선보인다.

지역 문화예술공연은 매주 오후 2, 4시에 열린다.

영암군은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즐기는 삼호주말장터가 영암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찾는 행사로 자리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영암=김형우 기자

순천사랑상품권 사용처 등 개편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제한

순천사랑상품권이 1일부터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개편(23. 2. 22.)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순천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되고, 1인당 최대 보유 한도액은 기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신규가맹점 등록 시에는 연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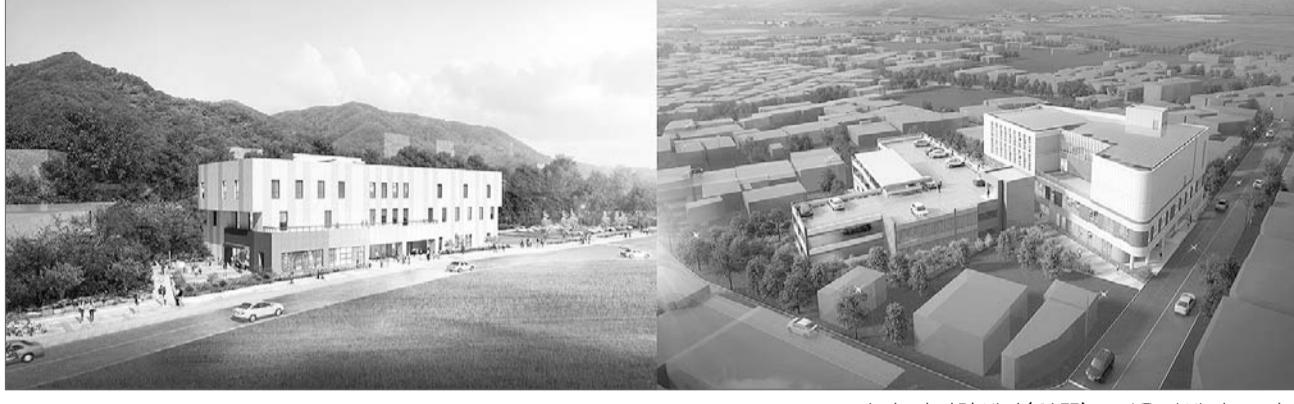
시는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 지난 11일부터 26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208개소를 확정하였으며, 이를 가맹점은 정책 발행 가맹점으로 전환된다.

208개소의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은 지역 농·축·수산물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파마스마켓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유통판매업체, 주유소, 병원, 약국, 슈퍼마켓이며, 해당 목록은 순천시 누리집(분야별 정보→생활·환경→생활정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어울림센터가 준공되면 군민 친화형 공간으로 다양한 복지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며, 강진읍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맘편한센터는 모든 세대에게 열린 가족 친화적인 생활시설로, 설계 초기부터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 참여단과 주민협의체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지상 1층에는 육아돌봄지원센터,



강진 맘편한센터(왼쪽)·어울림센터 조감도

커뮤니티 존을 조성해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보육 시설과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활용한다.

2층에는 청소년실내체육시설, 어린이문화체험을 위한 실내놀이존, 가족형 도서관이 운영되며, 3층은 청소년 동아리실 및 스터디룸, 평생학습장 및 시니어 프로그램이 가능한 다목적 생활공간으로 꾸며진다.

맘편한센터는 아동, 청소년, 부모, 노령층에 대해 연령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부처 연계 사업을 활용하는 등 주변 학교 및 공공기관, 주민 조직과 연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강진=한홍수 기자



해남, 농산물 가격 폭락하면 소득 보전 지원

가을 배추 등 수급불안 농산물 최저가격 결정

해남군은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업인소득보전 지원을 실시한다.

군은 2023년 해남군 농업인소득보전 지원 심의회를 개최하고, 수급불안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결정했다.

대상 품목은 해남군 농업인소득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 농산물로 가을배추(10kg) 4662원, 겨울배추(10kg) 4740원, 고추(600g) 9384원, 마늘

금 조성을 추진 중으로, 기금 원금의 10%를 조성해 집행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은 기금 조성이 완료된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2025년경 본격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전 점검이 이뤄졌다. 군은 심의회에 결정된 최저가격에 대해서 6월 말 군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할 예정이며,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전념할 계획이다.

/해남=김동우 기자

'지자체장 최초' 노관규 순천시장, 서울시 간부 대상 강의

'미래서울 아침특강'… 순천시 혁신사례 소개

노관규 순천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미래서울 아침특강' 강사로 나섰다. 앞서 지난달 9일 서울시 간부공무원과 함께 2023 순천 국제정원박람회를 방문한 오세훈 시장이 순천시의 청의 적이고 혁신적인 시도에 감명을 받고, 정원박람회를 총괄·기획한 노관규 순천시장에게 직접 강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관규 시장은 '순천만·정원·노작'이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순천만을 도심까지 끌어들이고 싶다는 막연한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 낸 사례를 소개했다. 순천만에 월동하는 혹두루미가 폐사하지 않도록 전봇대를 뽑고, 도심팽창으로부터 순천만을 지킬 에코벨트로 2013 순천국제정원박람회를 기획·유치하면서 겪었



던 우여곡절의 과정도 450명의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공유했다.

특히, 저류지와 도로를 정원으로 만들고, 국내 최초 전기 유람선 개발, 정원에서 하룻밤을 잘 수 있는 가든스테이 등 2023 정원박람회에 담긴 혁신적인 콘텐츠들은 노관규 시장의

상상력과 순천시 공무원들의 지혜, 수준 높은 순천시민의 삼합(三合) 덕분이었다고 전해 서울시 직원들에게 큰 영감을 주기도 했다.

노 시장은 "결국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상상력을 제시하는 시장, 지혜로운 공직자, 그리고 품격 높은 시민의 삼합(三合)"이라면서 순천의 혁신을 가능케 한 노예들을 유감 없이 보여줬다. 또한 "정원도시 서울이라는 오세훈 시장님의 상상력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실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 바란다. 순천시가 함께 들판이다"고 전했다.

또 "작은 중소도시가 하면 대한민국 꼬리를 훔드는 격이지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정원도시를 발표하고 실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몸통을 훔들고 판을 바꾸는 일"이라면서, "서울의 변화가 굉장히 설레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조준의 기자

광양시의회, 포스코 정비자회사 설립 진행 사항 청취

지역 소상공인·자회사 직원 피해방지 대책 요구

광양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의회 상담실에서 포스코로부터 정비자회사 설립 진행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서영배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포스코 관계자, 지역 상공인단체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포스코 관계자들이 정비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활동 결과를 설명하고 이후 참석자들이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시의원들은 "포스코가 지금까지 시민과의 소통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기존 협력사와 거래하는 지역소상공인 및

력자 대비 수평 이동이 원칙이며, 향후 연봉 협상에 의해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소상공인 피해방지 명문화 요구'에 대해서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구매 방식, 계약 등은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당장 명문화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영배 의장은 "금일 포스코 측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많고 서로간에 온도차이도 아직은 크다"며, "자회사 출범 후에도 의회에서는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며 포스코에서도 향후 관련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우선적으로 시민과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해 기업시민의 경영이념을 실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양=조준의 기자

신안 "은빛 병어 맛보러 오세요"

젓갈타운서 '섬 병어축제' 9일부터 3일간 개최

거리 장터가 운영된다.

청정 신안 앞바다에서 어획돼 신선하고 비린내가 없어 5월에서 6월 초여름에 맛볼 수 있는 신안 병어는 살이 연하고 지방이 적어 맛이 담백하며, 회를 떠서 먹기도 하고 구이, 조림, 짬, 찌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 먹을 수 있다.

또한 단백질이 풍부한 병어는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으며 비타민B1·B2가 풍부해 원기 회복에 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안군에서는 연평균 665여t의 병어를 어획해 약 105억 원의 위판고를 올리고 있다.

/신안=박정래 기자

곡성세계장미축제 31만명 관람

입점 식당 열흘간 2억 2000만 원 수익

코로나19 이후 4년만에 열린 전남 곡성세계장미축제에 31만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곡성군은 5월 동안 세계 장미축제가 펼쳐진 섬진강기차마을을 방문한 관람객은 31만명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축제 기간에는 22만여명이 장미축제를 관람했으며 방문객이 가장 많았던 날은 21일로 4만 5000명이 운집했다.

또 푸드트럭 13대, 100석 이상의 테이블이 방문객으로 가득차 입점 식당들은 축제 10일 동안 2억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달성했다.

수만 송이 장미 속에서 특별한 1송이 찾는 방문객에게 순금 기념 품을 지급하는 '황금장미를 찾아라' 이벤트에는 매 희 300명 이상의 관

객들이 참여했다.

곡성군은 코로나19 이후 4년만에 정상개최 되는 세계장미축제 성공을 위해 장미공원 크기와 보행로를 확장했으며 축제장 인근에 500명이 상의 임시 주차장도 마련했다.

또 더위에 치친 관람객들을 위해 장미공원 공연장을 전면 쉼터로 개편했으며 모든 공연은 중앙무대로 일원화됐다.

주말마다 장미공원 분수대 주변에 서 화려한 의상을 입은 스포츠댄스 선수들이 월츠, 팽고, 룰바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잡았다.

곡성군 관계자는 "내년에도 많은 관람객이 곡성세계장미축제를 관람하고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하고 콘텐츠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곡성=황상연 기자

담양,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최대 2000만 원 보장

담양군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위해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담양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은 사고 발생 때 본인 손해를 제외한 대인, 대물배상 책임을 최대 2000만 원(자기부담금 2만 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이며, 담양군민 누구나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다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경우 사고발

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회사 전용 상담 전화를 이용해 할 수 있으며, 청구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사고 발생 때마다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주민복지과(061-380-2842)로 문의하면 된다.

이별노 담양군수는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의 운행이 늘면서 사고 발생도 많아지고 있다"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 보험으로 운행자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양=조승채 기자

구례 반야원, 전남 제21호 민간 정원 등록



구례군은 광의면 마산면 수월리에 위치한 '반야원'을 지난 4월 18일 전라남도 제21호 민간 정원으로 등록했다.

특히, 55종의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가 식재되어 있어 계절마다 다양한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으며, 중앙에 자리한 70년 넘는 수령의 플라타너스는 정원의 랜드마크 휴식처가 되고 있다.

반야원 입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이며, 입장 관련 자세한 사항은 061-782-0600 번으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김순호 군수는 "반야원이 우리 구례의 새로운 힐링 명소로 거듭나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오광범 기자